2002년 5월 31일 창간 독자센터 : (02)721-9841

metroseoul.co.kr

metro® Life

제4144호 2019년 2월 21일 목요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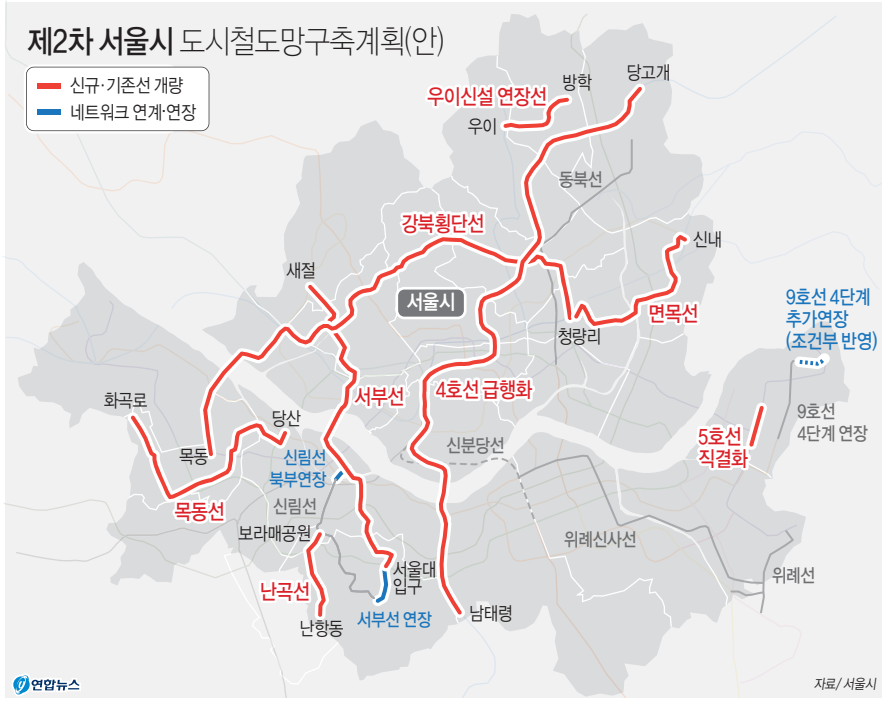
[산업]
SKT
자율車 보안솔루션
MWC서 공개
05

[마켓]
이병래 예탁원 사장
"전자증권제도
성공적인 시행 최우선"
08

철도로 강남북 균형 맞춘다… 경전철 6개 노선 신설

서울시 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

향후 10년간 7조 투입해 철도 구축
4호선 급행화·5호선 직결화 추진
통행 시간 15%↓ 이용객 40만명↑



서울시가 강남북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 강북을 좌우로 가로지르는 강북횡단선 등 경전철 6개 노선을 신설한다. 기존노선을 개량해 4호선에 급행열차를 투입하고, 5호선은 직선 연결하기로 했다. 서부선은 남부연장하고 신림선은 북부연장해 각각 서울대 정문과 여의도에서 환승할 수 있도록 한다.

서울시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용역결과를 발표했다. 시는 오는 2028년까지 총 7조2302억원을 투입해 10개 노선을 확충한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이날 시청에서 열린 기자설명회에서 "도시철도가 경제적 논리에 따라 공급되다 보니 지역적으로 상당한 편차를 보이고 있다"며 "경제적 타당성 최소기준(B/C 0.85 이상)을 만족하되 지역균형발전 효과가 높은 노선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노선 안을 선정, 2028년까지 철도중심의 대중교통 체계를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경전철 6개 노선을 신설한다. 재정사업으로 전환한 면목선·난곡선·우이신설연장선·목동선 등 4개 노선과 서부선, 새로 계획한 강북횡단선이 포함됐다.

강북횡단선은 목동과 청량리를 잇는 25.72km의 장대노선이다. 동쪽으로는 청량리역에서 1호선, GTX-C, 면목선, 경의중앙선과 연결된다. 서쪽으로는 5호선과 연결되며, 3호선, 6호선, 우이신설선, 서부선, 9호선까지 환승 가능하다.

시는 지자체 최초로 기존노선을 개량해 4호선 급행화, 5호선 직결화를 추진한다. 4호선은 역 사이 간격이 짧고 열차 속도가 느려 수송 효율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시는 당고개~남태령 구간에 급행열차를 투입, 통행시간이 최대 10분 단축될 것으로 기대한다. 5호선은 공사 중인 하남선 운행을 고려해 둔촌동~길동~굽은다리역을 직선으로 연결한다. 그동안 둔촌동역에 가기 위해 강동역을 거쳐야 했다.

서부선 남부연장과 신림선 북부연장으로 여의도와 서울대 정문 앞에서 환승 가능하도록 한다. 9호선 4단계 추가연장(고덕강일1~강일) 노선은 이번 계획에 조건부 포함됐다. 2021년 강일~미사구간과 함께 광역철도로 지정할 것을 전제로 한다. 광역철도 지정은 국토교통부가 한다.

향후 10년간 추진되는 도시철도 구축사업에 투입되는 사업비는 7조2302억원이다. 국비 2조3900억원, 시비 3조9436억원, 민간사업비 8966억원으로 조달할 예정이다. 규모가 가장 큰 강북횡단선(약 2조원)은 시민펀드를 모집, '시민 공유형 재정사업'으로 추진한다.

시는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이 실현되면 철도 통행 시간은 평균 15% 단축되고, 지하철 혼잡도는 평균 30%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철도 이용이 가능한 시민은 약 40만명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10분 내 철도서비스 가능지역은 현재 63%에서 75%로 확대된다. 철도역 접근이 어려웠던 행정동은 기존 170개에서 104개(40.1%→24.5%)로 줄어든다. 시는 철도 서비스 취약 지역이었던 동북권, 서북권, 서남권 시민의 철도 이용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대중교통 분담률이 현재 66%에서 75%로 증가해 대기오염이 약 15% 감소할 전망이다.

시는 국토부 사전협의, 시의회 의견청취, 주민공청회 등 관련 절차를 거쳐 4월 중 국토교통부에 승인 요청할 예정이다. 연말까지 계획이 확정되면 전 노선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할 계획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번 철도망 계획은 경제적 논리에 치우쳐져 있던 철도 공급기준을 교통 복지 측면에서 대폭 개선한 것"이라며 "천만 시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교통 소외지역에 과감하게 재정을 투입하는 것이 공공의 역할이다.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계획한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따릉이 수리' 동네 대리점서… 골목상권 활성화

서울시, 소규모 민간 대리점 모집

서울시가 공공자전거 '따릉이' 수리와 정비 업무를 동네 자전거 대리점에 맡기는 방식으로 일부 전환한다.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고 수리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따릉이포'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소규모 민간 대리점(영세업자) 50곳을 공개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따릉이포는 공공자전거 '따릉이'와 동네 점포를 의미하는 '포'의 합성어다. 동네 점포를 살려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자는 의미가 담겼다.

따릉이포 사업은 자전거 대리점 운영 경력이 3년 이상인 점주면 지원 가능하다. 정비능력과 정비 환경기준(작업공간, 보도 폭, 보관 공간 등)도 갖춰야 한다.

사업 참가를 희망하는 업체는 서울시설공단 홈페이지에서 지원서 양식을 내려받은 후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접수는 28일까지 받는다.

공공자전거 따릉이. /서울시

따릉이포 사업에 선정된 자전거 대리점은 3월부터 11월 말까지 계약을 하게 된다. 서울시설공단이 개별 점포에 고장난 자전거를 인계하면, 점포가 수리된 자전거를 다시 공단에 회수해 현장에 재배치하는 방식이다. 정비 항목은 프레임교환, 체인교체, 타이어교체, 펑크수리 등이다. 자전거대리점에 제공되는 정비비용은 모집 공고 때 안내한다.

현재 서울 지역 동네 자전거 대리점은 약 900여개로 추산된다. 시는 대리점 50곳에 따릉이포 사업을 시범 운영하고 결과에 따라 참여 업체를 확대할 방침이다.

지난 2015년 9월 도입된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는 2월 현재 총 2만대가 운영되고 있다. 운영 개시 3년 반 만에 누적회원수 109만명, 전체 이용건수 1600만건을 돌파했다. 시는 올해 말까지 따릉이를 3만대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지윤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동네 자전거 점포에 따릉이 수리 업무를 맡겨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골목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하겠다"며 "앞으로도 서울시설공단은 공공자전거 따릉이가 편리하고 유용한 서울시민의 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동네배움터 운영 모습. /서울시

서울시, 집 근처 평생학습시대 연다

2022년까지 424개동에 동네배움터

서울시가 '1동 1동네배움터'를 통해 평생학습시대를 연다.

서울시는 2022년까지 424개동 전체에 동네배움터를 설치한다고 20일 밝혔다.

동네배움터는 지역 특성에 맞는 생활밀착형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한다. 배움터는 학교, 도서관, 문화원 등 지역 인프라와 민간의 우수 프로그램도 연계한다. 생활문해 교육, 직업능력 증진, 지역문제 해결 등 실용적이고 차별화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이와 관련해 시는 내달 25개 전 자치구에서 동네배움터 공모를 실시한다. 동네배움터를 운영하는 자치구는 시와 함께 평생학습 협력 모델을 만든다. 전문인력, 재정 지원, 맞춤형 컨설팅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시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및 지역 주민 학습공동체 활동을 위한 지원금을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늘렸다.

사업 평가에 따라 2년 연속 지원도 가능하며, 최대 3년까지 지원한다. 시는 올해 동네배움터를 운영하는 자치구에 '동 평생학습 전문가'를 배치해 프로그램의 질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15개 자치구에서 작은도서관, 공방, 미술관, 소극장 등 유휴공간을 학습공간으로 활용했다. 이를 통해 53개 동네배움터에서 192개 주민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동네배움터 운영 사업 신청 기간은 3월 4일부터 6일까지다. 사업을 희망하는 자치구는 7개 이상의 동네배움터 설치·운영 계획을 갖고 있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서울시 정책사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철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은 "동네배움터가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든 쉽고 편하게 원하는 강의를 선택하고 생활 속 배움을 실천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서울시, 7~9급 공무원 3452명 뽑는다

신규 채용 작년比 1106명 증가

서울시가 올해 7~9급 지방공무원 3452명을 신규 채용한다. 지난해 2346명보다 1106명 증가한 규모다.

서울시는 20일 '제2·3회 공개경쟁 및 경력경쟁 임용시험' 공고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올해 신규 공무원 채용은 공개경쟁 2881명, 경력경쟁 571명이다. 분야별로는 ▲행정직군 1939명 ▲기술직군 1502명 ▲연구직군 11명이다. 직급별로는 ▲7급 269명 ▲8급 209명 ▲9급 2963명 ▲연구사 11명이다.

올해부터 응시자는 다른 시·도와 같은 날 필기시험을 치르게 된다. 9급(간호8급 포함) 응시자는 6월 15일, 7급(연구직·고졸자 포함) 응시자는 10월 12일이다.

시는 그동안 다른 16개 시·도와 달리 채용 때 거주제한을 두지 않아 타 시·도 거주자가 시험을 한 번 더 치를 수 있었다. 이를 두고 서울지역 거주자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있어 올해부터 시험 일자를 통일하게 됐다. 다른 기관과 중복 합격으로 인한 시험 관리의 낭비, 수험생 선의의 피해도 막을 수 있다.

시는 3월 12일부터 18일까지 서울시 인터넷원서접수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제2회 공개경쟁 및 경력경쟁 임용시험' 응시원서를 접수받는다. 필기시험은 6월 15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는 7월 26일이다. 최종합격자는 9월 26일 발표한다.

'제3회 공개경쟁 및 경력경쟁 임용시험'(362명)은 8월에 응시원서를 접수하고 10월 12일에 필기시험을 실시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6월 초에 공고한다. /김현정 기자